

News

한국은행 금리 0.5%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로 높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아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1%로 소폭 높아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3%로 올려...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

은행 대출 연체율 '역대 최저'...실상은 부실 '시한폭탄'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의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체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 시장에 손을 대면서 생긴 착시효과로 풀이...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책적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자칫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산이 뜬다" 시중銀, 시장진출 시동

서울경제

KB국민은행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신한은행은 LG CNS와 디지털화폐 플랫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해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결론 못내... 내달 3일 추가 논의

머니S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제재심은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며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텐센트와 합작... 中법인 3200억 투자유치

매일경제

삼성화재가 텐센트 등과 지분 제휴를 통해 자사 중국법인을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혀...
삼성화재는 이번 합작으로 중국 개인보험 시장 진출을 기대...텐센트 등 투자사들은 이번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32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투자 규제 강화 그림자...증권사들 영업 비상모드

데일리안

증권사들이 대체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비상모드...이번 규제는 사내 영업부서의 입김을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대형사들은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줄 가능성이 있고 중소형사들은 심의체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연말 임기만료 증권사 CEO 연임 촉각...호실적 속 사모펀드사태 변수

글로벌이코노믹

연말 임기만료가 임박한 증권사 CEO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려... 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CEO들의 연임이 확실시...
단 올해는 실적만으로 '2+1'년 총 3년의 임기의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 사모펀드사태에 따른 중징계 가능성 때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